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와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쉬지 않고 나아갑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 ▶ 치유, 회복과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새로운 출발의 달
소금과 빛 된 주간

건강한 믿음 성장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에
네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요한 3서 1:2

- 꿈이 있는 교회
- 섬김이 있는 교회
-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예배 및 모임안내

- 주일예배 Lord's Day Worship / Sunday 12:30 am
- 주일학교 Sunday School / Sunday 11:30 am (뉴 라이프 교회)
- 주일 성경공부 Sunday Bible Study / Sunday 11:00 am
- 금요 찬양예배 Friday Service / Friday 8:00 pm
- 새벽 경건회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 to 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 주중 성경공부 Bible Studies / Tuesday 8:00 pm (zoom)
- 일대일 제자훈련 Discipleship Classes / Monday 10:00 am

교회위치 Location



800 E. Palatine Rd., Palatine, IL 60074
847) 691-7846
www.churchofservant.com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에배

환영과 축복	사역과 소식 (교회/교우)
하나님 앞으로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최선운 집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민수기 2:1-34 성막(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 429장 (통일찬송 48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결단의 기도
헌신과 열매 (봉헌/나눔)	봉헌 구 민 집사 / 오정은 집사 ★봉헌찬송 / 213장, 4절 (통일찬송 348장) 나의 생명 드리니
세상과 삶으로	★찬양 / 찬송 502장 (통일찬송 259장) 빛의 사자들이여 ★축복기도 / 김성배 목사

★ 표는 모두 일어섭니다.

예배시간 10분 전 휴대전화를 끄고, 묵상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금요 찬양 예배

찬양과 기도

성경: 사무엘상 18:20-29

묵상제목: 두려움으로 평생 대적하다

예수님은 “빛이 되라”가 아니고 “너희는 빛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고 아닌 “너희는 소금이다.”고 선언하셨다. 성도의 정체성과 본분을 말씀하신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하면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세상은 자신을 태워 빛을 발산하라. 자신을 녹여 세상과 사람들을 썩지 않게 만들라고 한다. 이런 영향으로 교회와 성도 역시 무언가를 해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려한다. 이 유혹에 넘어가면, 율법주로 변질 된다.

주 예수님의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세상과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상의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소금과 빛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면,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 세상의 빛으로 살게 된다. 이 새로운 정체성은 열심히 노력해서 도달하는 목표가 아니다. 끈맛을 열심히 내서 소금이 되고, 더 밝게 타올라서 빛이 된다는 세상 논리가 아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라면, 이미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예수님의 선언이다.

세상은 현재 우리 삶의 타전이며, 부름을 받은 자리이다. 성도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교회가 존재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삶의 한장은 인력함보다는 불편한 자리, 환영보다는 조롱 받는 자리일 수 있다. 소금의 가치는 홀로 있을 때 나타나지 않는다. 소금은 그 특성상 타자를 위해 쓰일 때 그 가치가 드러난다. 바구니 안에 가둬놓은 등불은 아무리 밝게 타올라도 의미가 없다. 그 등불을 밖으로 꺼낼 때 온 사방이 밝아진다. 교회와 성도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정체성을 드러낸다. 삶의 현장에서 그 가치를 발산해야 한다. 이 땅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려 않기 때문이다. 삶의 현장에서 등불이 되면, 당연히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비춘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받아 세상의 소금으로 살게 된다. 우리가 소금의 존재로 살면, 소금의 맛을 내게 된다. 세상과 사람들이 썩지 않게 된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다”는 정체성을 기억하자. 우리의 존재가 먼저 빛이 되면, 빛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빛을 발산하게 된다. 우리가 먼저 소금의 존재가 되면, 소금의 맛을 내게 된다.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는 교회, 예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받는 성도가 되자. 소금이란 존재, 빛이란 존재가 되어, 세상의 소금과 빛 된 소명을 감당하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인에서 빛이 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엡 5:8-9)

(출처: 삼일교회)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은총을 경험 가능한 최소한의 공동체를 만드셨다.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과정의 소그룹이었다. 신앙의 교회들 또한 작은 규모의 '소그룹'이었다. 유대인의 회당과 같은 독립된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넓은 공간, 가정에서 매주 정기적으로 모였다. 음식을 나누며, 찬양을 부르며, 말씀과 예수님의 삶에 대한 나눔이었다. 곧 예배였고 성도의 교제였다. 성령님 안의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였다.

오늘 교회들도 주일예배에서 가능하지 않은 성도의 교제와 삶의 변화를 누릴 수 있는 소그룹 모임을 갖고 있다. 성경 지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삶이 되지 못함을 경험한다면, 말씀에 의한 거룩한 부흥을 일으키지 못한다면, 소그룹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마음이 변하게 된다.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서로 기도하고, 삶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서로 도전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삶의 변화를 만들도록 서로 격려하기 때문이다. Oikos 모임에서 기도 제목을 세세히 나누며, 깊은 고민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서로를 통해 경험할 수 있다. 세상과 이웃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통로가 된다. 시대와 문화의 변화로 신앙생활이 위축되고,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기 어렵지만, 여전히 사람들과 세상은 하나님이 필요하다. 헛된 소망을 품고 허우적거리는 사람들, 상처와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 치료와 위로를 필요한 사람들,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야 할 이웃들, 이들 모두가 구주 예수님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Oikos 모임은 예배, 말씀, 전도, 교제와 성장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한다. 사람을 변화시키며 풍성한 인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이다. 성도의 교제는 단지 다과나 식탁의 친교의 범주가 아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과정이다. 상실감에서 소속감으로, 실패를 딛고 성취감으로, 패배주의를 벗고 자존감을, 하나님에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 이 축복을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세상과 함께 나누게 된다. 서로가 배우고, 본이 되고, 변화되며 예수님을 더 신실하게 따르는 제자로 성장한다. 함께 건강하게 성장하고, 역동 있게 신앙생활하며, 더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자.

소년 다윗이 전사 골리앗을 마주할 때, 시냇가에서 돌을 5개 선택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았는가? Oikos 만남을 통해, 예배의 요소를 더욱 강화하며, 기도를 배우고,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의 공동체로 성장하자. 더 깊고 넓은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자.

섬김의 교회를 방문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후, 점심찬교를 통해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사역/행사 소식

1월 새 출발의 달입니다.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에 네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말씀과 함께 시작합니다.

1. **소금과 빛 된 주간** 교회와 성도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섬김, 소망의 인내로 치유, 회복과 나눔의 증인입니다.
2. **Oikos 모임** 오늘 저녁 최내권/선운 집사 가정에서 모입니다.
3. **PTA 모임** 오늘 오후 2:30 뉴라이프 교회에서 가집니다.
4. **성경읽기운동** 성경독 운동이 계속됩니다.
5. **제직회/공동의회** 28일 주일예배 후에 가집니다.
6. 복음을 전하는 건강한 교회와 성도가 됩니다.

교우소식

한국방문: 구은강 집사
싱가폴방문: 유명원 성도

생일축하

김기자(4) 김영준(7) 이진아(8) 박강현(20)
구민성(26) 최윤정(28)

1월 사역

Oikos 모임/PTA 모임(21) 소금/빛 된 주간(21-27) 제직회/공동의회(28)
선교주일(28) 선교주간(28-2/3)

한 주간의 말씀

시편 37:5, 6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 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 같이 하시리로다.

말씀개요 성막을 중심으로 / 민수기 2:1-34

광야생활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행군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다.

첫째, 항상, 진을 칠 때나 행군을 할 때

둘째, 어디서나,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배려해주시다.

셋째, 명확하게, 깃발과 나팔소리로, 하나님은 질서와 평화를 주신다.

하나님을 중심할 때, 축복된 교회와 행복한 가정,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맡겨주신 자리에서 감사하며 충성하자. 하나가 되어 서로를 배려하며 질서와 평화를 경험하자.

말씀요약

시나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백성이 되고, 율법을 받고, 성막을 완성한다. 인구조사 후 조직을 갖추고 하나님의 군대로 변했다.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행군하는 모습에서 새해를 성공적으로 살아갈 원리를 배우자.

첫째, 성막이 중심이었다. 성막을 중앙으로 대제사장(동쪽) 가문과 레위의 3 가문이 사방으로 진을 쳤다. 그 바깥 주위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세 지파씩 동서남북 진영을 이루었다. 행군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6지파가 성막을 앞서고 6지파가 그 뒤를 따랐다. 나뉘지 않고, 조화롭게 하나가 되는 분배였다. 성장환경과 성격이 다른 우리가 뒤죽박죽 혼란이 아닌, 하나님을 중심으로 참된 평강을 누리며, 참된 하나 됨을 이루자.

둘째, 하나님의 배려였다. 사람의 연약함에 대한 최상의 배려이다. 동쪽은 유다, 잇사갈과 스불론, 남쪽은 르우벤, 시므온과 갓, 서쪽은 에브라임, 므낫세과 베냐민, 북쪽은 단, 아셀과 납달리로 묶어졌다. 출생과 연관 안력이 많던 형제들이 최대한 잘 어울리는 조직이다. 이 방법이 옳고 그림보다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배려였다.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과 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감싸주신다.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고 나누자.

셋째, 질서가 있었다. 깃발과 나팔이 질서 유지를 위해 사용되었다. 4 진영, 12 지파, 가문들의 깃발 아래 우왕좌왕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통솔용으로 깃발이 사용되어, 군사들은 깃발을 앞세우고 행진하고, 깃발의 지시대로 흠어지고, 모이며 전쟁을 치렀다. 모세와 족장들이 뛰어나도 소통을 위한 효율적인 채널이 필요하다. 깃발을 이용해 질서를 유지하며 진을 치고, 행군하였다. 교회와 성도 역시 십자가를 기를 중심으로 모이고, 사역하고, 섬기며, 천국을 향해 전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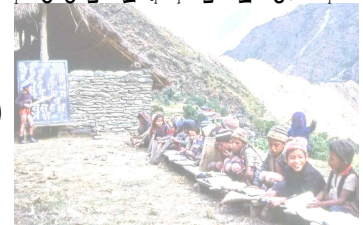
조직을 갖추고 효율적인 소통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 강압적인 방법이 아닌, 배려와 질서 속에 이스라엘이 모이며, 이동하며, 진군했다. 교회와 가정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조직되고 활동할 때, 서로의 형편을 살피며 배려하게 된다. 새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가 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서를 누리자.

기도제목

1. 성장과 열매: 2024년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 공동체의 사역들이 열매를 맺도록
2. 영성: 삶 속에서 말씀묵상과 기도로 영성 훈련하도록
3. 복음전파: 우리 삶 속에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도록
4. 가족: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5. 교육사역: 자녀들의 영적성장과 Youth Ministry를 위해
6. Oikos 가정사역을 통해 회복과 전도의 은혜를 누리도록
7. 선교지들과 선교사들을 위하여: 네팔/뉴욕(박은주 선교사)
8. 이웃 교회들과 연합사역을 위해

선교 (네팔/뉴욕, 박은주 선교사)

1.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들이 성령님 안에서 참된 성도의 교제를 갖도록
2. 새해의 사역들을 위해 (후원과 증성)
3. 건강을 위해 (가족들, 부모님의 구원)



예배 섬김이

주일기도인도

- 1월 7일 박진성 집사
- 14일 김윤경 사모
- 21일 최선윤 집사
- 28일 구 민 집사

주일봉헌인도

- 1월 7일 김훈태/최선윤 집사
- 14일 최선윤/구 민 집사
- 21일 구 민/오정은 집사
- 28일 오정은/김훈태 집사

주일예배 안내

- 1월 구 민 집사
- 2월 김훈태 집사

섬기는 사역자들

지도 목사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교육전도사 (Youth Minister) Jacob Kim 전도사
 찬양인도자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